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

- 일 시 : 2019. 4. 24.(수), 15: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제39회 충청중국포럼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출범 이후 충남도와 시·군 대(對)중국 교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교류의 장으로 개최, 운영되어 오고 있음
- 제39회 충청중국포럼에서는 ‘한국디카시연구소’ 이상옥 대표가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경남 고성 디카시(詩) 교류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고, 도 및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포럼을 통해 충남도와 시·군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행사개요

- ▶ 일 시 : 2019년 4월 24일(수), 15:00 ~ 17:00
-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 주 제 :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
-경남 고성 디카시(詩) 교류를 중심으로 -
- ▶ 강 사 : 이상옥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 ▶ 참석대상 : 충남도 및 산하 시, 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기타 관심 있는 모든 분

■ 행사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5:00 ~ 17:10	개회 ▶ 인사 및 참석자 소개	사회: 송영현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15:10 ~ 16:20	발제 ▶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	이상옥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16:20 ~ 17:00	토론 ▶ 발표자, 참석자	참석자 전원
17:00	폐회	

■ 발표자 프로필

▶ 직 위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 학 력 홍익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 경 력

1985-1994 고성 철성고 국어교사

1994-1999 진주교대, 창원대, 경남대 강사

1999-2016 창신대 문예창작과 교수 및 교양학부 교수

창신대 문예창작과 학과장 및 창신대 학보사 주간

2016-2018 중국 정주경공업대 한국어과 교수

2006-2007 무크 <디카시 마니아> 발행인 겸 편집인

2007- 현재 계간 <디카시> 발행인 겸 편집인

2014- 현재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 연구(강의)실적

2004년부터 최초로 ‘디카시’라는 신조어를 쓰며 디카시 문예운동 주재 (디카시 장르 창안)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수 기관에서 강의

1) 주요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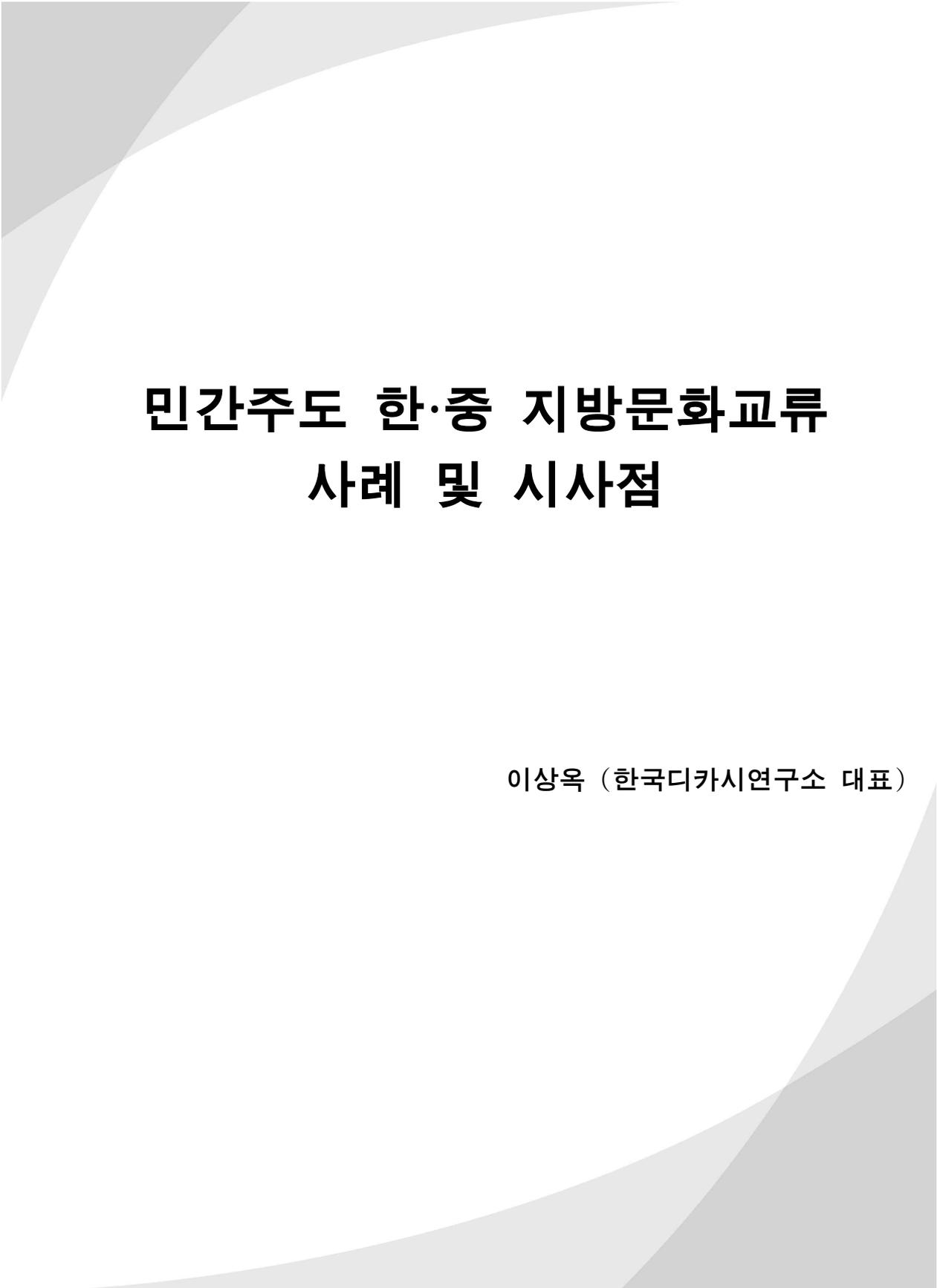
시집 <유리그릇>, <그리운 외뿔> 외 다수

디카시집 <고성 가도>, <장산숲>

평론집 <시창작입문>, <디카시창작입문>, <현대시와 투명한 언어>, <경남현대시인론> 외 다수

2) 주요 논문

<오장환 시연구>, <멀티포엠과 디카시의 전략> 외 다수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

이상옥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

-경남 고성 디카시(詩) 교류를 중심으로-

강사: 이상욱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디카시란 무엇인가

“디지털카메라(디카)와 시(詩)의 줄임말로,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사진)과 문자를 함께 표현한 시다.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사진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해 순간의 시적 감흥을 담는 것이 특징이다. 시적 형상을 순간 포착하고 그 느낌이 날아가기 전에 문자로 표현하여 SNS로 실시간 소통한다는 점에서, 영상과 함께 표현되는 문자는 짧게 5행 이내로 압축된다.”

디카시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언어 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범주를 확장하여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디카시는 2016년 국립국어원에 문학 용어로 등재되었고, 2018년에는 중·고교 국어교과서에 디카시 작품이 실린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디카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일부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언어 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범주를 확장하여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이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신조어 디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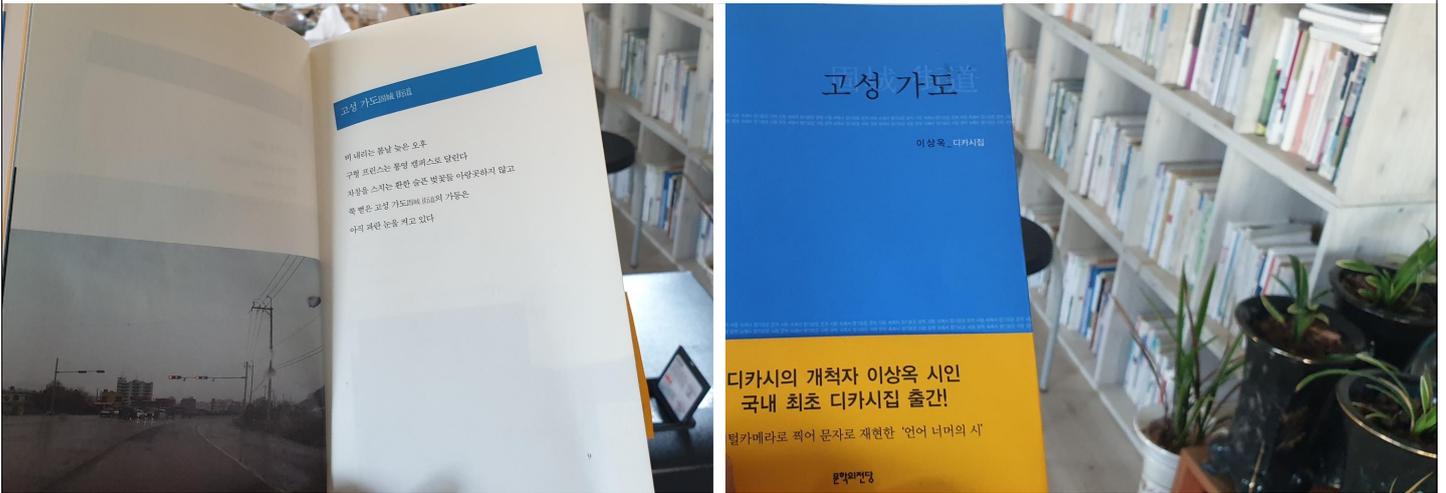
'디카시'라는 신조어는 2004년 4월 2일에 인터넷 한국문화도서관 이상옥의 개인서재 연재 코너에서 처음으로 사용

봄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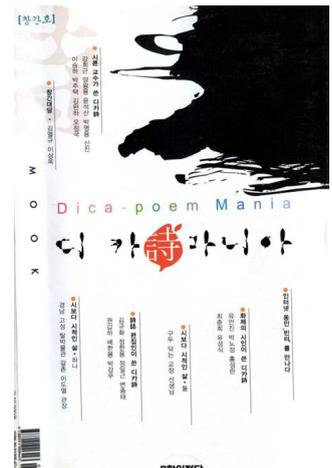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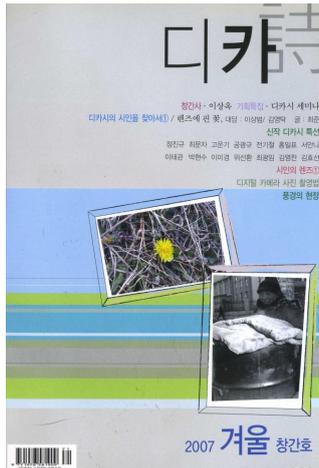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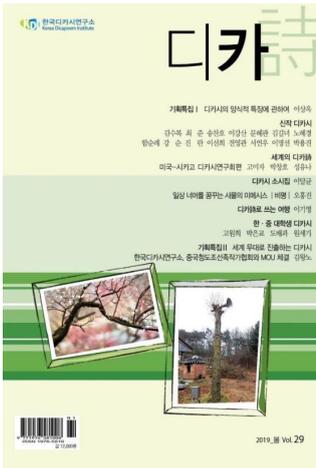
얇은 속옷 같은
어둠이 은은히 드리워진
봄밤의 캠퍼스
늦은 강의동 몇몇 창들만 뻗어 보네

최초의 디카시(2004. 4. 2 인터넷 한국문화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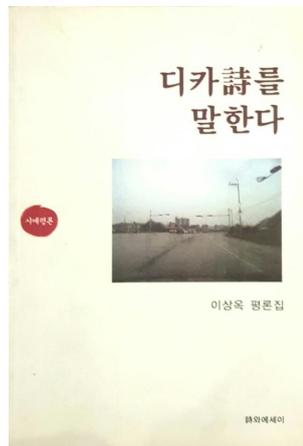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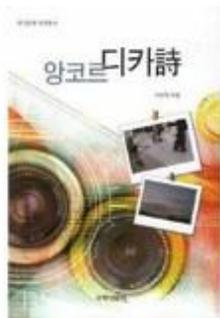
경남 고성을 발원지로 하는 디카시 지역 문예운동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연재한 50편의 디카시를 그해 9월 15일 디카시집 『고성 가도(固城 街道)』를 출간하면서 디카시가 공론화되기 시작. 처음 디카시는 개인 실험이었지만, 고성에서 지역 문예운동으로 펼쳐짐



온 오프라인 디카시 커뮤니티 구축

온라인 디카시 마니아 카페 개설, 디카시 전문 잡지 창간



디카시 이론서 발간

디카시를 디지털 시대의 장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디카시 시론을 구축

“디카詩는 언어 너머의 詩”



>>이상옥 평론집 ‘디카詩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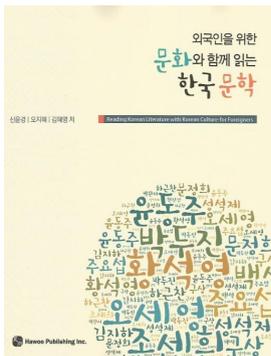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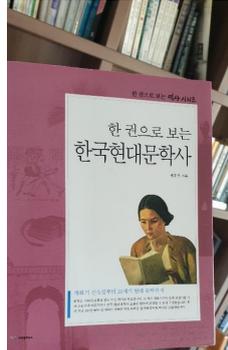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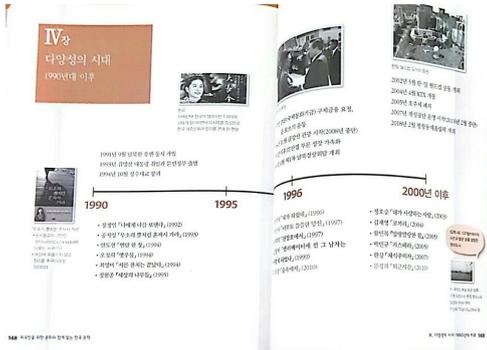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 풍광이나 인물을 기록하는 역할은 몫이었다. 사진이 출현하면서 화가들은 초기에 강력한 도전장을 받았다. 밥줄이 위협받는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의 ‘예술’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 욕구 때문이었다. 21세기에 이르러 회화는 회화대로, 사진은 사진대로 서로 넘나들면서 자신의 존재를 지켜내고 있다.

이상옥(50·마산 창신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인 ‘디카詩를 말한다’(시와에세이)를 접하면서 시인들은 사진의 고민을 반복할 수도 있다. 길을 가다 눈에 들어오는 카메라(디카)로 찍어 그 사진을 바탕으로 시를 짓는 ‘디카詩’라고 명명했다. 명명 차원을 넘어 디카 시론 정립을 위한 연구활동, 디카시전 기획, 영, 디카시 전문지 창간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디카 시론 정립을 위한 연구활동, 디카시전 기획, 영, 디카시 전문지 창간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고성이라는 지역적 명성을 환기하는 시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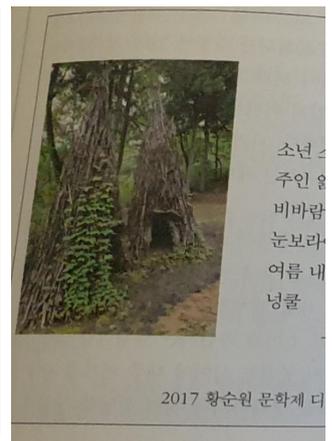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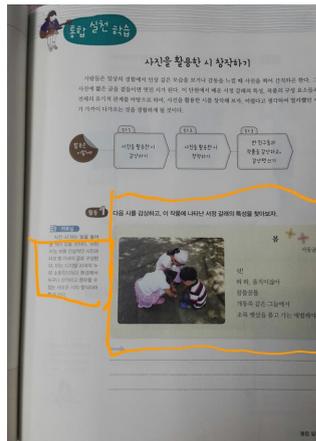
디카시의 발원지 경남 고성

이씨는 “디카시”는 단순한 시와 사진이 조합된 시가 아니라 ‘언어 너머 시’라며 “깊이 파지 않아도 널리



문학사적 의미 부여

디카시 <고성 가도>



디카시 교과서 수록



2008 제1회 경남 고성 디카시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

디지털 영상 시대에 시의 위의를 회복하고 독자과 새롭게 소통하는 전범을 제시하기 위해 디카시의 발상지인 경남 고성에서 디카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고교생 디카시 백일장, 디카시의 밤, 디카시전 등입니다(아래 행사 요강 및 팸플릿 참조 바람)



-고성예총이 주최하고 반년간 《디카시》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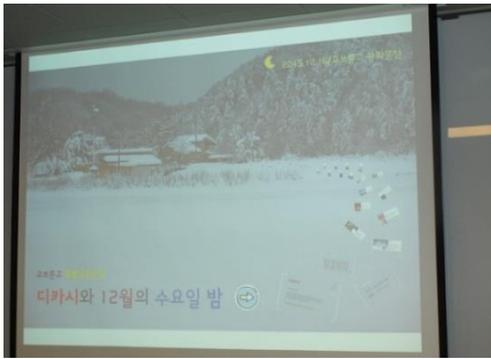


디카시가 2009년부터 서울시 주최 '시가 흐르는 서울' 행사
 매년 초청 받음. 이미 2008년 경남 고성디카시페스티벌이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디카시가 빠르게 확산

시가 흐르는 서울

디카시문화콘텐츠연구회 결성 (2010년 12월 25일)

경남 고성디카시페스티벌 등 디카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오늘의 한국디카시연구소
 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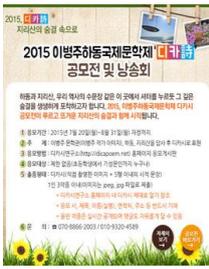


디카시문화콘텐츠연구회서
다양한 디카시 프로젝트 진행



고성문화원 부설 디카시연구소

2014년 5월 12일 경남 고성문화원에서는 새로운 시의 장르로 떠오르는 디카시를 고성의 문화자원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설 디카시연구소를 창립, 개소식을 가짐.



타 지자체와 MOU 매년 디카시공모전



몸빼바지 무늬

몸빼를 잊은 지 오래된 어머니가
알바지를 입고 밝고 향긋한 논두렁으로
갔을 때 날개 돋쳐나가기가 좋아하겠습니다.
빛바랜은 일바지에 꽃들이 와서
꽃무늬 옷감을 들여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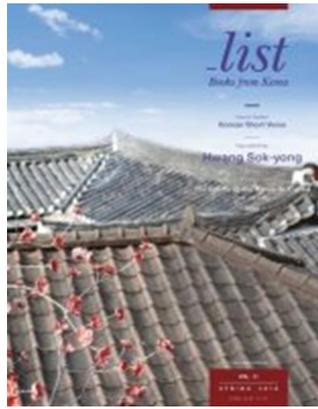
2015년부터 매년 디카시작품상 시상

제1회 디카시작품상 공광규의 <몸빼바지 무늬>

제2회 디카시작품상 김왕노의 <길의 꿈>

제3회 디카시작품상 송찬호의 <비상>

제4회 디카시작품상 리 호의 <투영>



시 특강 "시와 놀다"

4월 초·3월 말 공연
 4월 초·3월 말 공연 장소
 장소: 다카시 미술관 2층 (내곡동)

안정영 | 동서문학사 발행
 발행: 정민서 (010-9709-9999)
 * www.list.kr

1회	1/27(수)	50명	공공구 시민	나는 어떻게 먹고 있다
2회	2/3(수)	50명	신민당 시민	나를 달래고 나를 허무는 시
3회	2/17(수)	50명	미담교 시민	사랑 안에 무엇이 있다
4회	2/19(일)	50명	미담교 시민	사랑 안에 무엇이 있다
5회	2/19(일)	50명	미담교 시민	사랑 안에 무엇이 있다
6회	2/19(일)	50명	미담교 시민	사랑 안에 무엇이 있다
7회	2/19(일)	50명	미담교 시민	사랑 안에 무엇이 있다
8회	2/19(일)	50명	미담교 시민	사랑 안에 무엇이 있다

관람정보

관람시간: 2016 SNS 시인시작
 관람료: 2016년 1월 20(화) - 2016년 3월 13(일)
 관람처: 다카시 미술관 2층 (내곡동)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관람대상: 10세 이상 관람가 (유아 동반 시)
 관람비: 무료 (단체 관람 시 별도 협의)
 문의처: 010-9709-9999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획한 SNS 시인시작
 다카시 기획전

영문잡지 <list>
 (한국문학번역원 2016년 3월호)

다카시 국제화 원년



2016년 제9회 경남고성국제다카시페스티벌

제1회 한중대학생 다카시교류전



2018 제1회 중국대학생 디카시공모전 중국 정주 현지서 시상

제1회 중국 대학생 한글 디카시 공모전
수상자(가운데)인 류정양 중국 정주경공
업대 학생, 박성휘 공동회장, 이상욱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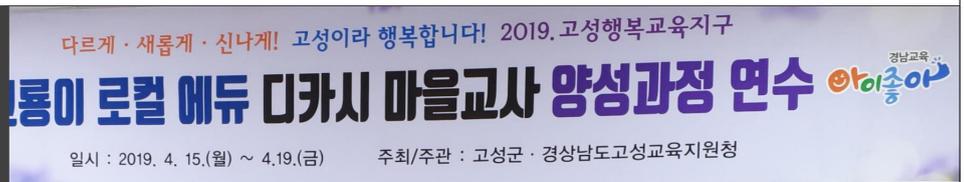
한국디카시연구소

한국디카시연구소는 2018년 9월 고성문화원 부설에서 독립기관으로 사무실을
이전 개소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서울과 수원, 부산, 하동 등 전국 각지에서 온
문인뿐만 아니라 지역 문인과 고성문화원장, 고성군청 관계자가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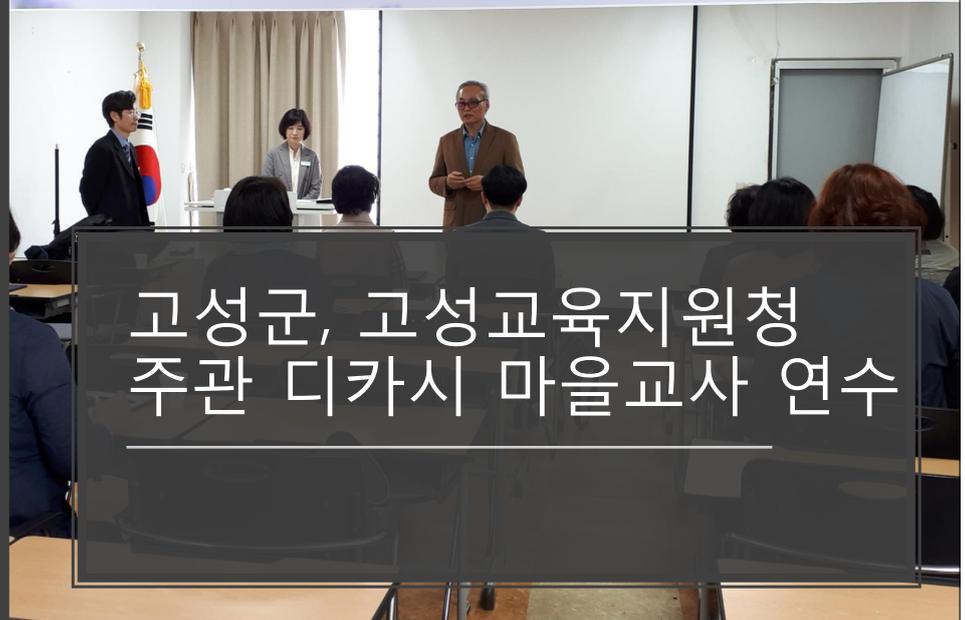
고성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로

고성을 발원지로 하는 디카시 운동이 지금 전국적 문예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잇달아 보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 일본의 하이쿠가 세계적인 시의 장르로 각광받고 있듯, 작은 도시 고성에서 발원한 디카시도 SNS시대 문학 한류로 세계로 확산



일시 : 2019. 4. 15.(월) ~ 4.19.(금) 주최/주관 : 고성군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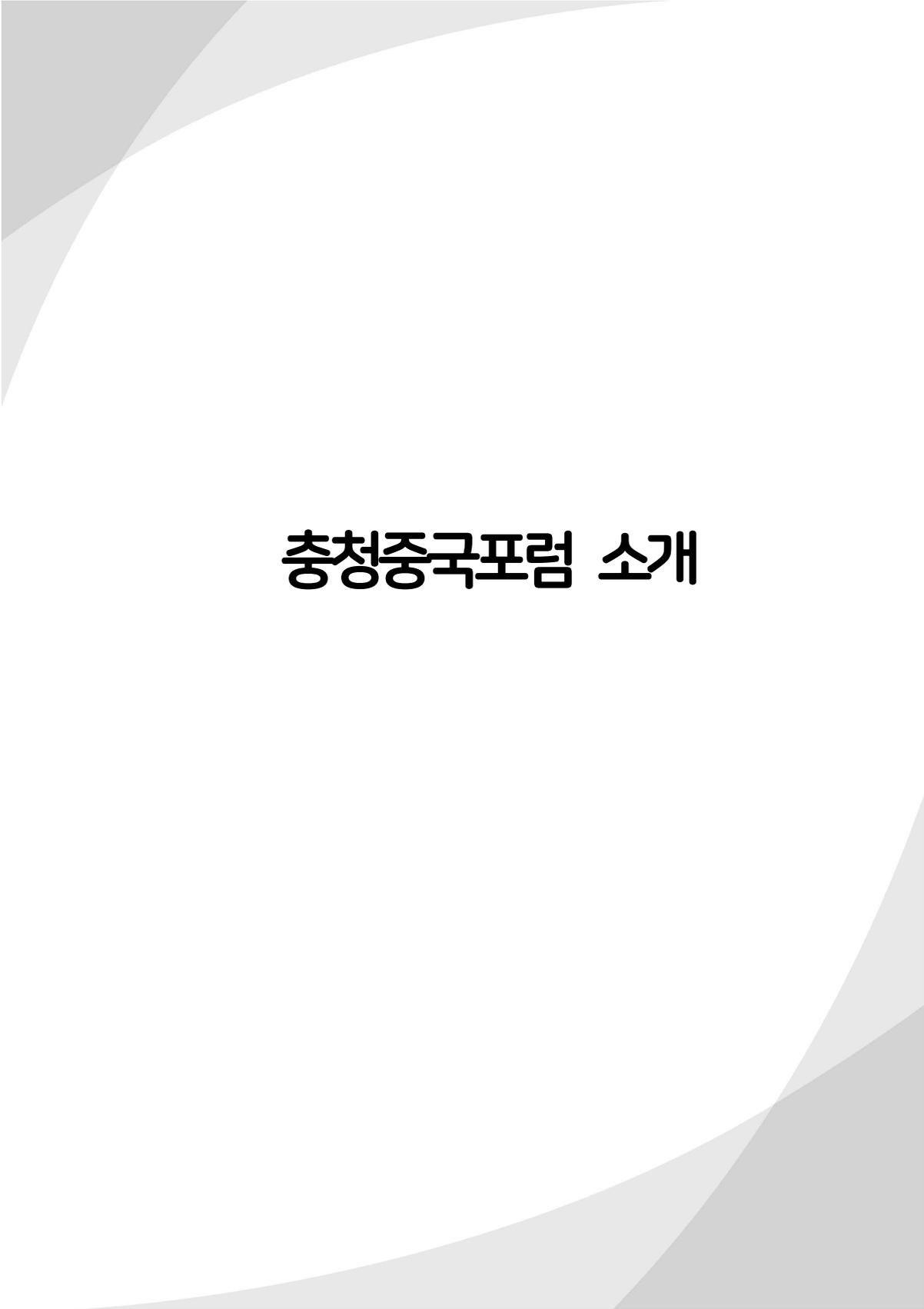


고성군, 고성교육지원청 주관 디카시 마을교사 연수

경남 고성, 한국의 피렌체를 꿈꾸다!

- 피렌체는 14~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유명 예술가들의 걸작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고, 유네스코에 의해 도시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 르네상스의 보고.
- 메디치 가문이 없었다면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도 피울 수 없었을 터. 메디치 가문은 예술가들이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줌
- 피렌체에 예술의 천재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단테, 페트라르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이 활동하던 예술과 문학의 도시가 바로 피렌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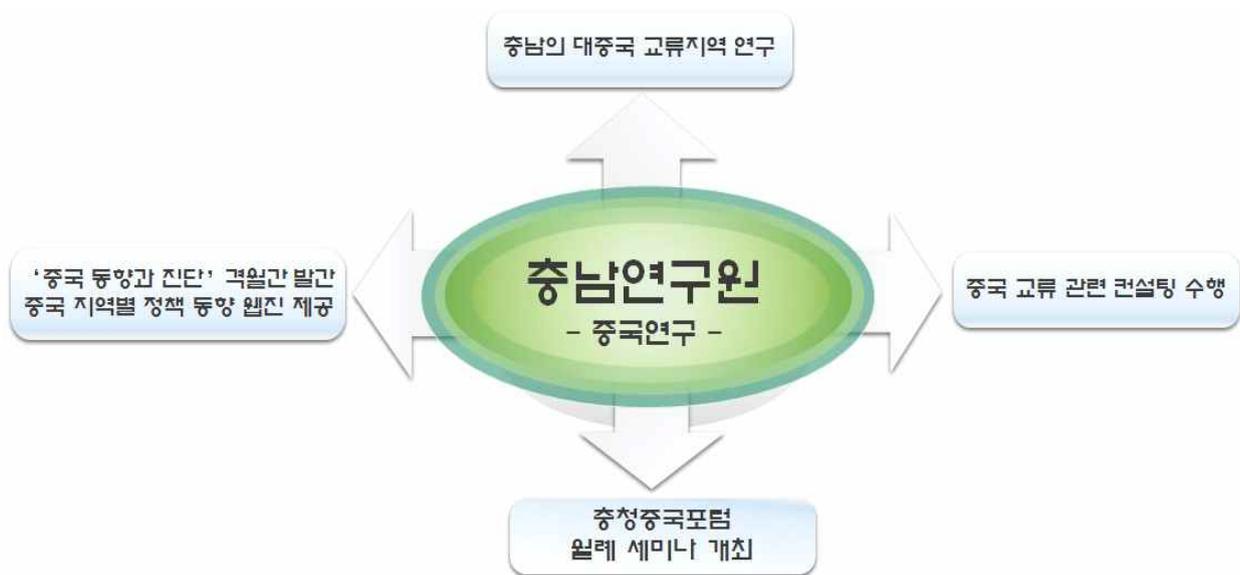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중국연구’는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례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주요 이슈와 진단’,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회차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칠강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3회	2015.8.26	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 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대사 관주대민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 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7회	2017.1.18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고정식(배재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18회	2017.2.22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	구자역(서경대 인성교양대학 학장)
19회	2017.3.29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엔타이(烟台)·펑라이 (蓬莱)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회	2017.4.25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1회	2017.5.30	환황해권 지방외교 활성화 합동 워크숍	

22회	2017.6.29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조광옥(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23회	2017.8.30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교수, 前경향신문 부국장)
24회	2017.9.25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발전: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독	원테권(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원장/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원장)
25회	2017.11.29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	이건웅(차이나하우스 대표)
26회	2017.12.1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27회	2018.1.31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원식(중국 북경대학교 박사)
28회	2018.2.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1: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29회	2018.3.28	두 중국 도시 이야기2: 상해와 심양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30회	2018.4.25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심장보(당진시 합덕읍 주무관, 전(前) 옥환시 파견공무원)
31회	2018.5.30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박경철(충남연구원 중국팀장)
32회	2018.6.27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이정희(인천대학교 연구교수)
33회	2018.8.29	충남과 차이나(china)는 관광전략	홍석민(아주경제신문 부장)
34회	2018.09.19.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송영현(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35회	2018.10.24	한국 청년들의 중국 창업전략 - 중국 4차산업혁명에 맞춰라	고영화(과기정통부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36회	2018.11.28.	지방공무원이 본 지방 공공외교 발전방안	최철구(보령시 교류협력팀장) 김관기(논산시 국제교류팀장)
37회	2018.02.27.	동북3성의 창업 환경과 중국 진출의 허와 실	박지민(쿠키스파트너 대표, 중국중강그룹(SINOSTEEL) 인큐베이터 한국사업부 본부장)
38회	2018.03.27	인천 對중국교류현황 및 시사점	김수환(인천연구원, 연구위원)
39회	2018.04.24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	이상옥 (한국디카시연연구소 대표)

